

## 35달러 받고 격투기 시합 나갔다가 숨진 대학생

훈련 한 달 만에 실전 격투기에 투입됐다가 혼수상태에 빠진 중국 대학생이 사망했다.

지난 11월 30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린 격투 시합에서 상대 선수에게 맞아 쓰러진 뒤 사망한 밍지아신(22)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청두 명문 남서재경대학에 입학한 재원으로, 격투기 훈련 한 달 만에 시합에 참여했다가 변을 당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는 승패와 관계없이 240위안(약 35 달러)의 출전비를 지급하겠다는 코치의 설득에 참여를 결정했다.

상대 선수는 11승 3KO 기록을 보유한 프로급 격투 선수 왕하오안(19)이었다. 밍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키 172cm, 몸무게 57kg으로 체급이 비슷하고, 태국 방콕 무에타이 챔피언십 우승 전력도 있었다.

이에 비해 키 168cm, 몸무게 55kg의 밍은 실전 경험이 전무한 아마추어 중 아마추어였고, 결국 링에 오른 지 35초 만에 왕의 발에 복부를 맞고 쓰러졌고 지난 20일 끝내 사망했다.

해당 대회는 참가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전문 선수부터 회사원, 교사, 운전기사, 학생 등 10대



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과 직업의 사람이 시합에 출전했다. 다만 프로와 아마추어 2개 조로 나눠 진행되는 경기는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체급과 경기 수준이 맞는 상대끼리 매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주최 측은 시합의 재미를 위해 무리한 진행도 일삼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2016년 1월 40대 회사원도 사망한 링과 맞붙었던 왕선수를 상대로 링에 올랐다가 KO패를 당했으며, 3분여간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기도 했다.

현지에서는 돈을 미끼로 가난한 대학생을 부추겨 시합에 내보냈다가 죽음에 이르게 한 코치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경찰은 시합 주최 측과 코치, 상대 선수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 제 발에 총 쏘 체포된 강아지 도둑



강아지(사진)를 들고 달아나던 무장강도가 이른바 '셀프 저격'으로 체포됐다.

지난 20일 저녁 7시 30분쯤, 캐나다 온타리오주 브램턴시경찰은 강아지를 훔쳐 달아나던 강도가 실수로 제 발에 총을 쏘고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20대의 이남성을 체포했다. 이 남성은 온라인 거래사이트를 통해 강아지 구매 의사를 밝힌 뒤 판매자를 만나 강아지를 넘겨받고 판매 여성을 총기로 위협한 뒤 값을 치르지 않고 달아나려다가 실수로 장전된 총을 자신의 다리에 쏘 넘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으며, 현장에서 강아지 판매자를 위협한 45구경 총기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다행히 판매자는 모두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용의자는 강도 및 화기 무단소지 등 총기 관련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캐나다는 2017년 기준 34.7%의 총기 소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2018년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 절차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한층 강화한 새로운 총기법을 도입했지만 총기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초, 주정부 공휴일 주간 동안 토론토에서는 12건의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특히 토론토 시내 노스요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는 100여 명이 모인 무대에서 누군가 총기를 난사해 놀란 사람들이 떼지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 구조 요청한 사람에게 “입 닥쳐!” 폭언한 911 직원

지난 8월 아칸소주의 911신고 센터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건 사람은 데비 스티븐슨(47·오른쪽)이라는 여성으로, 홍수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차에 갇혀 있다는 다급한 내용이였다.



의 오디오 파일을 입수해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어났다.

그러나 지난 20일, 현지 경찰은 문제의 911센터 담당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소에 해당할 만한 행동은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사건을 조사한

차량 내부로 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면서 구조대를 보내 달라고 호소하는 스티븐슨의 신고전화를 받은 사람은 현지 구조센터에서 일하는 도나 르노(왼쪽)였다.

르노는 “수영을 하지 못하며 죽고 싶지 않다.”고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자에게 “왜 이렇게 겁을 먹었는지 모르겠다. 당신은 죽지 않을 것”이라며 무신경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지속적으로 구조 요청을 하는 신고자에게 “닥쳐!”라며 폭언을 내뱉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물이 깊은 곳 근처에서 왜 운전했느냐?”며 꾸짖기까지 했다.

결국 신고자는 구조되지 못한 채 신고 전화를 건 지 58분 만에 변사체로 발견됐고, 이후 현지 언론이 22분 분량

포트스미스경찰국에 따르면 당시 담당자가 무례한 행동으로 정적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범죄 과실 등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신고자에게 무례하게 말하긴 했지만 신고 전화를 받은 직후 중요 순서대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포트스미스경찰서장은 “홍수 피해를 본 이들의 신고가 왜곡하는 상태에서 스티븐슨이 자신의 위치를 설명하지 못해 위치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아마도 911센터 담당자 역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었을 것”이라며 “향후 911 신고센터 직원을 보충해 업무량을 줄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in Hyuk Lee**  
213-210-2898  
735 E. 12th St., #308  
Los Angeles

CA Insurance Agent #: 0G84555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 2019 Allstate Insurance Co.

9772519

##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한 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